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양남희*¹⁾ · 홍은실**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 and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Yang, Nam-Hee*¹⁾ · Hong, Eun-Si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mily strength and career maturity, and to explore the difference of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family strength,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as subjects. A total of 1,0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858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respect to general tendency of family strength and career maturity, the score of family respect was the highest, 3.59, followed by 3.56 of gratitude and affection, 3.54 of problem shooting ability, economic stability, faithfulness to role, emotional bond, positive communication and goal sharing. The score of emotional bond with society was the lowest, 2.90. The score of family strength was 3.36, which was the intermediate level. As sub-factors of career maturity, the score of relevancy was 3.40, and that of tendency was 3.17, followed by that of independence and compromise. The score of determination was the lowest, 2.75. A total score of career maturity was 3.05.

Family strength was marked highly by the girls students studying humanities, and religious ones. Those whose parents have high education and no-divorce background also showed high scores.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economic levels and long-married parents showed higher scores than high school students with poor economy levels and single parents. Students with parents who have professional jobs also marked high scores.

1) 교신저자: Yang, Nam-Hee, 375 SeuSuk-Dong, Dong-gu, Gwang ju 501-759 Korea

Tel: 062-230-7394, Fax: 062-232-8122, E-mail: nhyang@chosun.ac.kr

2) 본 연구는 2010년도 조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Career maturity degree as a background variabl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ollowing cases: In terms of religious background, students whose mother are buddhists or atheists marked high scores. High scores were marked by those whose parents have higher education and no-divorce background. High school students from middle class and over and long-married parents showed higher career maturity degree than high school students with poor economy levels and single parents. Students with parents who have professional jobs also marked high career maturity degree.

While career maturity degree, which is subjected to family strength, showed very different results when analysed with 5 sub-variables. As family strength resulted in positive effects to career maturity degree, higher family strength showed higher career maturity degree. Especially, in the areas of relevance and tendency of career maturity degree, the effects of positiveness was clearly high.

Key words: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2011년 11월)에 따르면 고용률은 59.7%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p 상승했으나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만 명, 30대는 5만 7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의 실업률도 6.8%로 3개월 연속 증가하여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함을 입증해 주었다(MBN 뉴스, 2011.12.14).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의 직업세계는 다양화,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청소년들의 적절한 진로선택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직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것인지 아는데 혼란스러워 할 뿐 아니라 미래 직업세계의 전망이 불확실하여 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근, 1988). 청소년에게 진로선택은 장차 펼쳐질 삶을 위한 충분한 터전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선택이 현명하게 이뤄져야 앞으로 선택할 직업을 통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선택은 최신의 직업정보, 고용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김충기, 1996).

2007년 2월 확정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초등 실과 6학년에는 일과 진로 단원을, 중등 기술·가정의 9학년에는 생애 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을, 10학년에는 직업과 진로설계 단원을 구성하였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과목을 개설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내용을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술·가정 교과과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단원이 한 단원이었던 것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두 단원으로 증가한 것이며, 실과(기술·가정)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자신이 어떤 진로와 직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개인의 능력 발휘의 기회가 달라지며, 이는 교유의 유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과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일과 청소년의 진로성숙 정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과 결정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권용미 2003; 김길정, 2003; 송영준, 2002; 최승희, 2006; 홍향연, 유태명, 2008). 또한,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최초의 교육의 장이요, 정신건강에 중요하며 인격형성의 기본 틀이 이루어지는 곳인 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바른 성장에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양순미, 2003).

특히, 가족에 대한 부정적, 병리적 측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건강한 가족(유영주, 1994)은 주요 개념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어은주, 유영주, 1995; 유계숙, 2004; 유영주, 1999, 2001, 2002; 최선희, 1999; 허봉렬, 1996, 1997)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기본단위인 건강한 가족은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의식의 성숙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기 진로성숙은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파악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진로탐색, 계획 및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배경변인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배경변인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가족건강성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 즉,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초부터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Otto(1962)는 건강한 가족은 가족의 신념과 종교,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족이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여 이해하며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가 있으며,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항상 행복하고 함께 일하며 즐기고 가족 내의 어떤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존중해 주고 특정 휴식활동을 함께하고 교육열이 있는 가족이라고 하였다(어은주, 1996). 한편 그는 보통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의 강점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가족의 강점’은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지닌 관계유형이라고 하였다(윤세은, 2000).

유영주(1991)는 건전가정을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보고, 건강한 가족의 학문적 정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였다(유영주, 1994). Olson과 DeFrain(2003)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였다(오명희, 장윤옥, 2007).

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진로성숙도를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Super, 1952)이며, 성장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 연속상의 한 도달점(Super, 1955)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 간의 비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인 직업의 준비정도(Crites, 1961),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을 위한 준비(Gribbons & Lohnes, 1964),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Hoyt, 1977)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한편 개인이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수준이며 그 선

택을 현실적이고 독자적이며 일관성 있게 하기위해 개인이 도달한 발달정도의 직업적 준비정도(Crites, 1978)로 정의되며 1940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 직업생활에 대한 연구들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이민영, 1997).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태도요인과 능력요인으로 나누어 태도요인에는 진로선택의 과정에서의 결정자의 ① 결정성, ② 관여성, ③ 독립성, ④ 성향, ⑤ 타협성을, 능력요인에는 ① 자기평가, ② 직업정보, ③ 목표선정, ④ 계획, ⑤ 문제해결 등을 포함시켰다(정미란, 2005).

한편 김충기(1996)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과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고 보았다. 그밖에 자아의 이해와 일 및 직업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 선택, 결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준비, 적응 및 수행의 정도(이동숙, 2000)를, 그리고 주어진 발달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진로결정이나 계획에서의 준비도로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적응해 가는 준비의 정도(고대석, 2002)를 진로성숙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3.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 관련변인

1) 가족건강성 관련변인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연정(2007)은 가족건강성연구가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이 자신의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클 수 있는데 그중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임정아(2005)는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직업과 결혼유형, 부모의 종교 유무,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가족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유형이 초혼일 때, 부모가 종교를 가진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

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및 하위요인 전체 간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

조아라와 현온강(2008)은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기능, 경쟁, 만족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아가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선행연구와 일치하였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가족 건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희경(2005)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지각한 학령기 자녀의 가족건강성(3.95)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여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가족건강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월수입에서는 500만원이상인 경우가 500만원이하일 때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오명희와 장윤옥(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이 중간정도 지각한 청소년보다, 가족건강성을 중간정도 지각한 청소년이 낮게 지각한 청소년보다 내적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이 중간정도 지각하거나 낮게 지각한 청소년 보다 외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성숙도 관련변인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진로지도에 대한 이론이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는데 특히, 크롬볼츠는 “인간은 유전적·사회적으로 부여된 특성을 가지고 환경에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자신에 대한 견해(self-views)를 형성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견해는 일과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자연적 또는 프로그램화된 강화(reinforcements) 또는 벌(punishments)을 통해서 형성되고 수정된다”고 하였다. 로(Rou)는 어렸을 때 경험한 가족에서의 상호작용과 이들의 경험이 이후의 진로지향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초기 아동기의 경험이 한 개인이 선택한 영역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어렸을 때 어떠한 부모-자녀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태도, 흥미, 능력, 욕구충족 양식 등을 형성하게 되며, 그것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김영인, 노경주, 정철영, 2006). 이들은 개인의 진로결정에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이충국, 1998)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진로태도성숙도 검증결과 진로태도 총점과 5개 하위차원들 중 결정성을 제외한 4개의 하위차원에서 고등학생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변화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변화를 밝히고 있다. 정미란(2005)은 중·고등학생의 성별, 학년, 성적, 자아정체감, 삶의 의미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영준(200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밝혀졌고,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미영(2006)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는 자녀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인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홍향연과 유태명(2008)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영향변인에서 성별, 어머니 학력,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 전체 및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 모든 항목 간에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 그 다음이 성별로 나타났다.

구성된 유영주(2004)의 척도를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과 목표의 공유, 역할의 충실도, 가족 간 문제해결능력, 가족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의식 9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각 개인이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진로를 탐색, 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한다. 진로성숙도 측정은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현옥(1989)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태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진로선택 시 개인이 갖는 태도, 성향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총 47개 문항이며,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 ‘결정성’, 진로선택과정에서 능동적 참여의 정도인 ‘참여성’,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인 ‘독립성’,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인 ‘성향성’, 진로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인 ‘타협성’의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진로성숙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남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0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8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III. 연구방법

1. 용어정의와 조사도구 및 측정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란 가족 개개인의 특성이 건전하게 발달, 유지되며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지속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총 68문항으로

〈표 1〉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 척도의 신뢰도

가족건강성	Cronbach's α	진로성숙도	Cronbach's α
총합	.98	총합	.66
가족존중	.88	결정성	.47
유대의식	.87	관여성	.47
감사와 애정정서	.90	독립성	.68
긍정적 의사소통	.89	성향성	.78
가치 목표 공유	.86	타협성	.41
역할 충실도	.92		
문제해결능력	.89		
가족경제적 안정	.87		
사회와의 유대의식	.88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58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567(66.1)	부학력	대졸	410(47.8)	동거여부	모	비동거	41(4.8)	
	여자	291(33.9)		대학원졸	64(7.5)			동거	817(95.2)	
학교 계열	인문계	423(49.3)	모학력	초졸	13(1.5)		친조부	비동거	724(84.4)	
	실업계	435(50.7)		중졸	11(1.3)			동거	134(15.6)	
학년	1학년	319(37.2)		고졸	532(62.0)		친조모	비동거	720(83.9)	
	2학년	345(40.2)		대졸	296(34.5)			동거	138(16.1)	
	3학년	194(22.6)		대학원졸	6(0.7)		외조부	비동거	754(87.9)	
연령	15세	12(1.4)	형제순위	1째	176(20.6)			동거	104(12.1)	
	16세	293(34.1)		2째	457(53.4)			외조모	비동거	750(87.4)
	17세	318(37.1)		3째	192(22.4)		동거		108(12.6)	
	18세	152(17.7)		4째	15(1.8)	부직업	전문직		93(11.1)	
	19세	83(9.7)		5째	16(1.9)		행정관리직	92(11.0)		
부종교	없음	490(57.1)	결혼유형	초혼	797(92.9)		사무직	169(20.2)		
	기독교	175(20.4)		이혼	33(3.8)		판매직	167(20.0)		
	천주교	45(5.3)		재혼	15(1.7)		서비스직	136(16.2)		
	불교	147(17.2)		사별	3(0.3)	농림어업	42(5.0)			
	기타	147(17.2)		기타	10(1.2)	생산직	82(9.8)			
모종교	없음	279(32.5)	부모 결혼기간	11-20년	362(48.3)	모직업	단순노무직	56(6.7)		
	기독교	352(41.0)		21-30년	314(41.9)		무직	10(1.2)		
	천주교	77(9.0)		31-40년	56(7.5)		전문직	44(5.1)		
	불교	138(16.1)		41년 이상	17(2.3)		행정관리직	27(3.2)		
	기타	12(1.4)		상	134(15.6)		사무직	58(6.8)		
본인 종교	없음	487(56.8)	경제수준	중	666(77.6)	서비스직	130(15.2)			
	기독교	263(30.7)		하	58(6.8)		농림어업	126(14.7)		
	천주교	43(5.0)		동거여부	비동거			77(9.0)	단순노무직	12(1.4)
	불교	64(7.5)						부		동거
부학력	중졸	14(1.6)								
	고졸	369(43.1)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a 계수를 구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건강성,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한편 제 변인들 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총 가족건강성은 3.36점(5점 척도)으로 중간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홉 가지 가족건강성 하위영역 중 가족존중의 점수가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감사와 애정정서 3.56, 가족 간 문제해결능력 3.54로 나타났으며, 가족 경제적 안정(3.51), 역할의 충실도(3.43), 유대의식(3.41), 긍정적 의사소통(3.31)과 가치관 목표공유(3.31)의 순이었으며, 사회와의

유대의식은 2.90으로 가장 낮았다. 즉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은 중간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보통 상태이므로 가족건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족에 대한 존중과 감사, 애정, 가족원들 간의 문제해결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가족과 사회와의 유대의식은 가장 낮아서 이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진로성숙도 총 점수(5점 척도)는 3.05점으로 중간정도이었다. 다섯 가지 하위영역 중 관여성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성향성(3.17), 독립성(2.96), 타협성(2.92)의 순이었으며 결정성이 2.7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송희, 2006)에서 중간정도의 성숙도를 보인 결과와는 비슷한 결과이나 조사대상의 차이와 조사시기의 최근성을 고려해 보면 낮은 점수라 할 수 있어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과 연령, 외조모 동거를 제외한 모든 변인, 즉, 성별($t=6.71, p<.01$), 학교계열($t=34.56, p<.001$), 부종교($F=15.96, p<.001$), 모종교($F=13.48, p<.001$), 본인종교($F=22.02, p<.001$), 부학력($F=34.95, p<.001$), 모학력

<표 3>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

가족건강성	Mean	SD	진로성숙도	Mean	SD
총합	3.36	0.61	총합	3.05	0.25
가족존중	3.59	0.66	결정성	2.75	0.43
유대의식	3.41	0.71	관여성	3.40	0.41
감사와 애정정서	3.56	0.75	독립성	2.96	0.24
긍정적인 의사소통	3.31	0.80	성향성	3.17	0.61
가치관 목표의 공유	3.31	0.71	타협성	2.92	0.34
역할의 충실도	3.43	0.78			
가족 간 문제해결능력	3.54	0.70			
가족 경제적 안정	3.51	0.82			
사회와의 유대의식	2.90	0.87			

(F=11.74, p<.001), 형제순위(F=21.08, p<.001), 결혼유형(F=3.71, p<.01), 경제수준(F=21.58, p<.001), 부모결혼기간(F=14.91, p<.001), 동거여부의 경우 부(t=48.38, p<.001), 모(t=34.17, p<.001), 친조부(t=7.24, p<.01), 친조모(t=27.71, p<.001), 외조부(t=4.91, p<.05), 그리고 부직업(F=7.73, p<.001), 모직업(F=8.7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많은 선행연구결과(김명자, 2004; 양남희, 2010; 윤세은, 2000; 임정아, 2005; 장지연, 2005)와 일치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송경희, 2004; 임정아·이인수, 2006)도 일부 존재한다. 학교계열에서는 인문계고교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성별결과에서의 연구자들과 유사하게 나타나 실업계학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특성	구분	빈도	M (SD)	S	F(t)	특성	구분	빈도	M (SD)	S	F(t)	
성별	남자	567	3.32 (.61)		6.71**	결혼 유형	초혼	797	3.38 (.62)	b	3.71**	
	여자	291	3.44 (.60)				이혼	33	3.14 (.53)	ab		
학교 계열	인문계	423	3.48 (.64)		경제 수준		재혼	15	3.32 (.32)	ab		21.58***
	실업계	435	3.24 (.56)				사별	3	2.35 (.00)	a		
학년	1학년	319	3.36 (.58)				기타	10	3.14 (.50)	ab		
	2학년	345	3.38 (.61)			상	134	3.67 (.78)	a			
	3학년	194	3.32 (.67)		중	666	3.30 (.52)	b				
연령	15세	12	3.54 (.26)		부모 결혼 기간	하	58	3.32 (.85)	b	14.91***		
	16세	293	3.32 (.58)			11-20년	362	3.32 (.54)	b			
	17세	318	3.39 (.61)			21-30년	314	3.26 (.63)	ab			
	18세	152	3.41 (.65)			31-40년	56	3.51 (.70)	b			
	19세	83	3.29 (.65)			41년 이상	17	4.17 (.73)	c			
부 종교	없음	490	3.27 (.61)	a	부	비동거	77	2.91 (.50)		48.38***		
	기독교	175	3.49 (.52)	b		동거	781	3.41 (.60)				
	천주교	45	3.82 (.48)	c	모	비동거	41	2.83 (.56)		34.17***		
	불교	147	3.39 (.66)	ab		동거	817	3.39 (.60)				
모 종교	없음	279	3.29 (.57)	b	친조부	비동거	724	3.39 (.63)		7.24**		
	기독교	352	3.34 (.57)	bc		동거	134	3.23 (.47)				
	천주교	77	3.55 (.86)	c	친조모	비동거	720	3.41 (.62)		27.71***		
	불교	138	3.55 (.54)	c		동거	138	3.11 (.48)				
본인 종교	기타	12	2.47 (.37)	a	외조부	비동거	754	3.38 (.61)		4.91*		
	없음	487	3.24 (.60)	a		동거	104	3.24 (.61)				
	기독교	263	3.47 (.56)	b	외조모	비동거	750	3.36 (.62)		0.07		
	천주교	43	3.88 (.81)	c		동거	108	3.35 (.58)				
부 학력	불교	64	3.50 (.38)	b	부직업	전문직	93	3.55 (.63)	b	7.73***		
	중졸	14	2.82 (.53)	a		행정관리직	92	3.48 (.59)	b			
	고졸	369	3.17 (.57)	b		사무직	169	3.48 (.63)	b			
	대졸	410	3.48 (.60)	c		판매직	167	3.37 (.61)	b			
	대학원졸	64	3.80 (.48)	d		서비스직	136	3.26 (.62)	ab			
모 학력	초졸	13	2.78 (.68)	a		농림어업	42	3.40 (.64)	b			
	중졸	11	2.88 (.77)	ab		생산직	82	3.23 (.59)	ab			
	고졸	532	3.30 (.63)	b		단순노무직	56	2.91 (.14)	a			
	대졸	296	3.52 (.51)	c		무직	10	3.47 (.26)	ab			
	대학원졸	6	3.24 (1.05)	abc		전문직	44	3.77 (.56)	c			
형제 순위	첫째	176	3.07 (.31)	a	모직업	행정관리직	27	3.32 (.64)	abc	8.71***		
	둘째	457	3.52 (.64)	c		사무직	58	3.47 (.85)	bc			
	셋째	192	3.25 (.64)	ab		판매직	130	3.29 (.48)	ab			
	넷째	15	3.49 (.74)	abc		서비스직	126	3.26 (.48)	ab			
	다섯째	16	3.28 (.59)	abc		농림어업	31	2.92 (.23)	a			
						생산직	35	3.19 (.33)	ab			
						단순노무직	12	2.68 (.29)	a			
						전업주부&무직	392	3.43 (.65)	bc			

*p<.05, **p<.01, ***p<.001

생들의 가정적 환경이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더욱 실업계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종교와 본인의 종교 모두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종교 가운데 천주교 신자의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가족건강성의 특성요인으로 가족관계를 강화시켜준다는 선행연구들(권미희·오윤자, 2004; 윤세은, 2000; 임정아, 2005)을 참조해 볼 때 부모의 종교 활동이나 본인의 종교 활동은 가족 간의 공감, 유대형성에 도움을 주어 전체적으로 가족건강성을 높여 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은 대체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의 폭이 넓고 자녀를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김진희, 1989)와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박소영, 1995)를 참조해 볼 때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좋고 자녀와 폭넓은 대화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자녀의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강희경, 2005; 김명자, 2004; 윤연정, 2007; 임정아,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형제순위는 첫째와 둘째 간에, 그리고 둘째와 셋째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둘째 자녀가 첫째나 셋째보다 가족건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유형은 부모가 초혼인 학생의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권미희, 2003; 윤세은, 2000; 임정아, 2005)와도 일치하며 초혼의 안정적 가정환경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인 학생이 '중'이나 '하'인 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의 결과와 연관성 있게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년수는 41년 이상, 31-40년인 학생의 순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아 비교적 늦둥이로 태어난 학생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동거형태에서 부와 모 모두 동거학생이 비동거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나 친조부모나 외조부의 경우 비동거학생

이 동거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친, 외조부모와 비동거 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조부모와의 동거를 확대가족이라고 보고 확대가족이 가족건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서도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볼 때는 의외의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가족구조를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지 않고 동거여부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친조부모나 외조부와 동거하는 학생이 부모와는 동거하지 않는 조손가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버지의 직업은 단순노무직과 전문직, 행정관리직, 사무·판매직, 농림어업직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인 학생의 가족건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직업 또한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인 학생의 가족건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역으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인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이는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임정아(200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한편 권미희와 오윤자(2004)는 자녀의 가족건강성은 아버지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직업 가운데 전업주부 어머니일 때 자녀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학교계열, 학년, 연령, 부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종교($F=2.83, p<.05$), 본인종교($F=6.76, p<.001$), 부학력($F=5.63, p<.001$), 모학력($F=7.60, p<.001$), 형제순위($F=3.46, p<.01$), 결혼유형($F=4.48, p<.001$), 경제수준($F=3.81, p<.05$), 부모결혼기간($F=5.11, p<.01$), 동거여부의 경우 부($t=11.57, p<.001$), 모($t=28.12, p<.001$), 친조모($t=20.68, p<.001$), 외조부($t=4.77, p<.05$),

그리고 부직업(F=10.81, p<.001), 모직업(F=4.2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어머니의 종교와 본인의 종교가 없거나 불교인 학생이 기독교이거나 천주교인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대졸집단과 중졸집단 간에,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대졸집단과 고졸·대학원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에서는 부모가 대졸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학력이 대졸 이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

특성	구분	빈도	M (SD)	S	F(t)	특성	구분	빈도	M (SD)	S	F(t)		
성별	남자	567	3.05 (.26)		0.01	결혼 유형	초혼	797	3.06 (.25)	b	4.48***		
	여자	291	3.05 (.25)				이혼	33	2.96 (.31)	ab			
학교 계열	인문계	423	3.06 (.27)		1.75		재혼	15	3.11 (.16)	b			
	실업계	435	3.04 (.23)				사별	3	2.54 (.00)	a			
학년	1학년	319	3.06 (.23)		0.14		기타	10	3.02 (.15)	ab			
	2학년	345	3.05 (.25)				경제 수준	상	134	3.07 (.25)		b	3.81*
	3학년	194	3.05 (.29)					중	666	3.06 (.25)		b	
연령	15세	12	2.88 (.16)		2.19			하	58	2.97 (.27)		a	
	16세	293	3.04 (.22)				부모 결혼 기간	11-20년	362	3.07 (.22)		b	5.11**
	17세	318	3.07 (.26)					21-30년	314	3.06 (.26)		b	
	18세	152	3.06 (.26)					31-40년	56	3.00 (.30)		ab	
19세	83	3.03 (.30)		41년 이상	17			2.85 (.35)	a				
부종교	없음	490	3.05 (.23)		1.73	부	비동거	77	2.96 (.26)		11.57***		
	기독교	175	3.04 (.25)				동거	781	3.06 (.25)				
	천주교	45	3.13 (.22)			모	비동거	41	2.85 (.26)		28.12***		
	불교	147	3.06 (.32)				동거	817	3.06 (.25)				
모종교	없음	279	3.08 (.27)	b	2.83*	동거 여부	친조부	비동거	724	3.05 (.26)		0.18	
	기독교	352	3.02 (.20)	ab			동거	134	3.04 (.22)				
	천주교	77	3.05 (.27)	ab			친조모	비동거	720	3.07 (.26)			20.68***
	불교	138	3.08 (.30)	b			동거	138	2.96 (.20)				
	기타	12	2.97 (.29)	a			외조부	비동거	754	3.06 (.26)			
본인종교	없음	487	3.08 (.24)	b	6.76***	외조모	비동거	104	3.00 (.21)				
	기독교	263	3.00 (.22)	a		친조부	비동거	750	3.05 (.26)		1.20		
	천주교	43	3.03 (.33)	ab		동거	108	3.08 (.24)					
	불교	64	3.07 (.37)	b		부직업	전문직	93	3.16 (.35)	c	10.81***		
부학력	중졸	14	2.89 (.12)	a	행정관리직		92	3.16 (.30)	c				
	고졸	369	3.03 (.25)	ab	사무직		169	3.11 (.21)	bc				
	대졸	410	3.08 (.25)	b	판매직		167	3.01 (.20)	ab				
	대학원졸	64	3.02 (.28)	ab	서비스직		136	2.96 (.21)	a				
모학력	초졸	13	2.90 (.18)	ab	7.60***		농림어업	42	3.03 (.36)	abc			
	중졸	11	2.98 (.28)	ab			생산직	82	2.98 (.22)	a			
	고졸	532	3.02 (.24)	a			단순노무직	56	3.00 (.11)	abc			
	대졸	296	3.11 (.26)	b			무직	10	3.23 (.07)	abc			
형제순위	첫째	176	3.02 (.14)	a	3.46**		모직업	전문직	44	3.16 (.45)		b	4.25***
	둘째	457	3.06 (.26)	ab		행정관리직		27	3.08 (.21)	ab			
	셋째	192	3.05 (.31)	ab		사무직		58	3.07 (.17)	ab			
	넷째	15	2.96 (.23)	a		판매직		130	2.99 (.15)	a			
	다섯째	16	3.23 (.35)	b		서비스직		126	3.09 (.29)	ab			
								농림어업	31	2.92 (.26)	a		
					생산직	35		3.01 (.17)	ab				
					단순노무직	12		2.89 (.28)	a				
					전업주부&무직	392		3.06 (.25)	ab				

*p<.05, **p<.01, ***p<.001

상일 때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 신미자(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형제순위는 첫째·넷째 집단과 다섯째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섯째가 적은수지만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셋째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가족 수가 많은 중에 늦게 태어난 학생의 경우 순위 형제들이나 가족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혼유형에서는 부모가 초혼인 학생과 재혼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사별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초혼이든 재혼이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 진로에 대한 태도가 보다 성숙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상’·‘중’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 이상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결혼기간은 11-30년인 학생집단과 41년 이상인 학생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결혼지속년수가 11년에서 30년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결혼기간이 41년 이상인 집단은 가족건강성은 높으나 진로성숙도는 낮아서 진로성숙도는 젊은 부모를 가진 학생집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여부에서 부모와 동거인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나, 조부모의 경우 친조모와 외조부와 비동거인 학생이 동거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다. 친조모나 외조부와 동거하는 학생 중에는 친조모나 외조부와만 생활하는 조손가정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진로에 대한 관심을 줄인 결과라고 사료된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행정 관리직인 학생집단과 생산직인 학생집단 간에,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과 판매직·농림어업·단순노무직인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부모직업에서 부가 전문직·행정 관리직인 학생이, 모가 전문직인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편이었다. 직업의 전문성이 높은 것은 교육·경제수준과 연계되어 이들이 높은 집단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가족건강성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는 후 일원분산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 다섯 하위영역과 총합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라 ‘결정성(F=6.38, p<.01)’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가족건강성 정도가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가족건강성이 중간인 학생보다 낮은 학생이 오히려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간의 존중과 유대, 책임 등의 가족건강성 정도가 중간 이상인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이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의외의 결과이지만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결정성’ 평균점수가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가운데 가장 낮았고 중간점수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표 3> 참조)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의

<표 6>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가족건강성 ⁺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			타협성			총합		
	M	(SD)	S	M	(SD)	S	M	(SD)	S	M	(SD)	S	M	(SD)	S	M	(SD)	S
상	2.73	(.46)	ab	3.55	(.44)	b	2.92	(.30)	a	3.41	(.65)	c	2.85	(.31)	a	3.12	(.29)	b
중	2.69	(.44)	a	3.55	(.34)	b	2.99	(.23)	b	3.25	(.58)	b	2.91	(.40)	ab	3.10	(.25)	b
하	2.81	(.40)	b	3.18	(.34)	a	2.96	(.20)	ab	2.95	(.52)	a	2.97	(.30)	b	2.98	(.20)	a
F값	6.38**			104.44***			5.40**			47.41***			7.73***			28.48***		

*p<.05, **p<.01, ***p<.001

+ 상(N=213): 상≥mean+1/2std

중(N=297): mean-1/2std<중<mean+1/2std

하(N=348): 하≤mean-1/2std

경우 가족원들간의 진로에 대한 의견교류가 적고 정보제공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진로방향을 오히려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른 ‘관여성($F=104.44, p<.001$)’은 가족건강성이 ‘상’,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가족건강성이 높거나 중간 정도인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진로선택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과 진로선택과정에서의 능동적인 관여성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이며, 청소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른 ‘독립성($F=5.40, p<.01$)’은 가족건강성이 ‘상’인 집단과 ‘중’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가족건강성이 중간인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았던 앞 절의 결과를 참고할 때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의 경우 자녀의 진로선택에 부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서 진로선택에 대한 자녀의 독립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른 ‘성향성($F=47.41, p<.001$)’은 가족건강성 ‘상’, ‘중’, ‘하’ 집단 각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과 진로설정에 대한 준비성향이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가족건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른 ‘타협성($F=7.73, p<.001$)’은 가족건강성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진로를 선택할 때 욕구나 현실과 타협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시 욕구와 현실과 타협하는 정도인 타협성도 결정성과 마찬가지로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에게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이나 유대, 가치 공유 등의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욕구나 그 밖의 현실과의 타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였다.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총합($F=28.48, p<.001$)’은 가족건강성이 ‘상’, ‘중’인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가족건강성이 높거나 중간 정도인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전반적인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중간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높지 않은 정도(3.36점)를 나타내었다. 가족건강성 하위영역 가운데 ‘가족에 대한 존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사와 애정정서’,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역할의 충실’, ‘유대의식’, ‘긍정적 의사소통’, ‘가치관과 목표의 공유’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사회와의 유대의식’은 가장 낮은 중간점수 미만이었다. 오늘날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와의 유대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중간정도(3.05점)이었으며,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가운데 ‘관여성’이 가장 높았고 ‘성향성’, ‘독립성’, ‘타협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결정성’이 가장 낮았다. 가족건강성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하고 욕구나 현실과 조율하는 법을 배우고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학생이, 인문계고교 학생이, 부모가 종교가 있거나 본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남학생과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종교가 가족건강성의 강화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부모의 종교 활동이나 자녀의 종교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가족 간의 공감과 유대형성에 도움을 주어 전체적으로 가족건강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부모의 직업수준이 높은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고등학생 자

녀의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경제적 수준은 곧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가족건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섯째, 부모의 결혼형태가 초혼인 학생의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조부모나 외조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서 초혼의 안정적 가정환경과 조손가정이 아닌 부모와의 동거가 가족건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진로성숙도에 대한 종교의 효과는 가족건강성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게 나타나서 어머니나 본인의 종교가 없거나 불교인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즉 어머니나 본인의 종교가 없는 학생은 가족건강성은 낮고 진로성숙도는 높으며, 어머니나 본인의 종교가 불교인 학생은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가 모두 높으며, 어머니나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인 학생은 가족건강성은 높으나 진로성숙도는 낮았다. 이를 상세히 규명하는 차후 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 부모가 대졸인 학생이, 부모직업이 전문직인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경제적 수준은 가족건강성과 마찬가지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여덟째, 부모의 결혼유형이 초혼인 학생과 재혼인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부모의 결혼안정성과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역시 진로성숙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아홉째,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하위영역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가족건강성은 전반적인 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성’과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 정도인 ‘성향성’에서 그 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반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 정도인 ‘결정성’과 진로선택 시 욕구와 현실과 타협하는 정도인 ‘타협성’은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이 두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는 중간점수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여서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에게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은 것

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의 경우 가족원들 간의 진로선택에 대한 의견교류가 적고 정보제공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진로방향을 오히려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여 결정짓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진로준비를 위한 능동적인 행동보다 성급히 포기하는 마음으로 현실적 요구와 타협하여 결정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을 진로선택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진로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하는 ‘독립성’은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이 가장 낮았고 가족건강성이 중간인 학생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았던 앞서 논의한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의 경우 자녀의 진로선택에 부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서 진로선택에 대한 자녀의 독립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생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권미희 (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희, 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권용미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정해설**.
- 김길정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2004). 부모와 대학생자녀의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의식과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9(3), 55-80
- 김미영 (2006). **어머니의 축적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

- 산업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 노경주, 정철영 (2006). **청소년 진로 및 학업지도**.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1996).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자기성장을 위한 합리적 접근**. 70-75, 서울: 양서원.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1995).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안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경희 (2004).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준 (2002).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자 (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남희 (2010).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 **가정과교육학회지** 22(1), 79-96.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어은주 (1996).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연구-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3). **진전가정육성을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 오명희, 장윤옥 (2007).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57-74.
- 유계숙 (2004). **건강 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6-32.
- 유영주 (1991). **진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 유영주 (1994). **가족건강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제16차 한국아동학회 총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유영주 (1999). **진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 유영주 (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유영주 (2002). **건강가족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 **생활과학논집**, 6(1), 1-24.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윤세은 (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 관계-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 (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숙 (2000). **고등학생의 성격과 진로 성숙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민영 (1997). **청소년 진로발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근 (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성원사.
- 이충국 (1998). **진로 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 (2005).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임정아, 이인수 (2006).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유아교육**, 15(2), 105-122.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장지연 (2005). **고등학생의 가정과 교과에서 건강가족에 관한 교육 요구도 및 가족건강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란 (200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 현은강 (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학회지**, 26(4), 135-148.
- 최선희 (1999). **한국인의 가족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송희 (2006). **실업계고교생의 진로선택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준 (2006). **고등학교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봉렬 (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제3회 가정의 날 기념행사.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허봉렬 (1997). **건강가족 실천 운동의 방향과 과제**. 건강가족상 적립을 위한 워크샵.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홍향연, 유태명 (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49-64.
- Crites, J.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 Crites, J.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Crites, J.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lifornia: CTB/McGraw-Hill.
- Crites, J.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Roe, A. (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York: John Wiley.
- Olson, D.H.,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Families-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 New York: McGraw-Hill, Company.
- Otto, H.A. (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0.
- Super, D.E.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 Super, D.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Row.
- Tolbert, E.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MBN 뉴스, 2011. 12. 14.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135771.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1, 2, 3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3일-11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0부를 배부하여 부실자료를 제외한 858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아홉 가지 가족건강성 하위영역 중 가족에 대한 존중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감사와 애정 정서, 가족 간 문제해결능력, 가족 경제적 안정, 역할의 충실도, 유대의식, 긍정적 의사소통과 가치관목표공유의 순이었으며, 사회와의 유대의식은 2.90으로 가장 낮았다. 총 가족건강성은 3.36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관여성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성향성, 독립성, 타협성의 순이었으며, 결정성이 2.75로 가장 낮았다. 총 진로성숙도 점수는 3.05이었다.

셋째,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여학생이, 인문계고교 학생이, 부모와 본인 종교가 있을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체로 높은 경우, 부모의 결혼유형은 초혼인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부모결혼기간은 길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조부모와 외조부와는 비동거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어머니나 본인의 종교가 없거나 불교인 학생이, 부모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부모의 결혼유형이 초혼이거나 재혼인 경우, 경제수준이 중간 이상인 경우, 부모결혼기간은 11년-30년 사이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이, 친조모와 외조부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이,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다섯째,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하위영역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가족건강성은 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어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여성과 성향성에서 그 효과는 더욱 명백하였다. 반면 조사대상 학생의 평균점수가 중간점수 미만이었다면 결정성과 타협성은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독립성은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이 가장 낮았고 가족건강성이 중간인 학생이 가장 높았다.

■ 논문접수일자: 2011년 12월 5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2월 31일